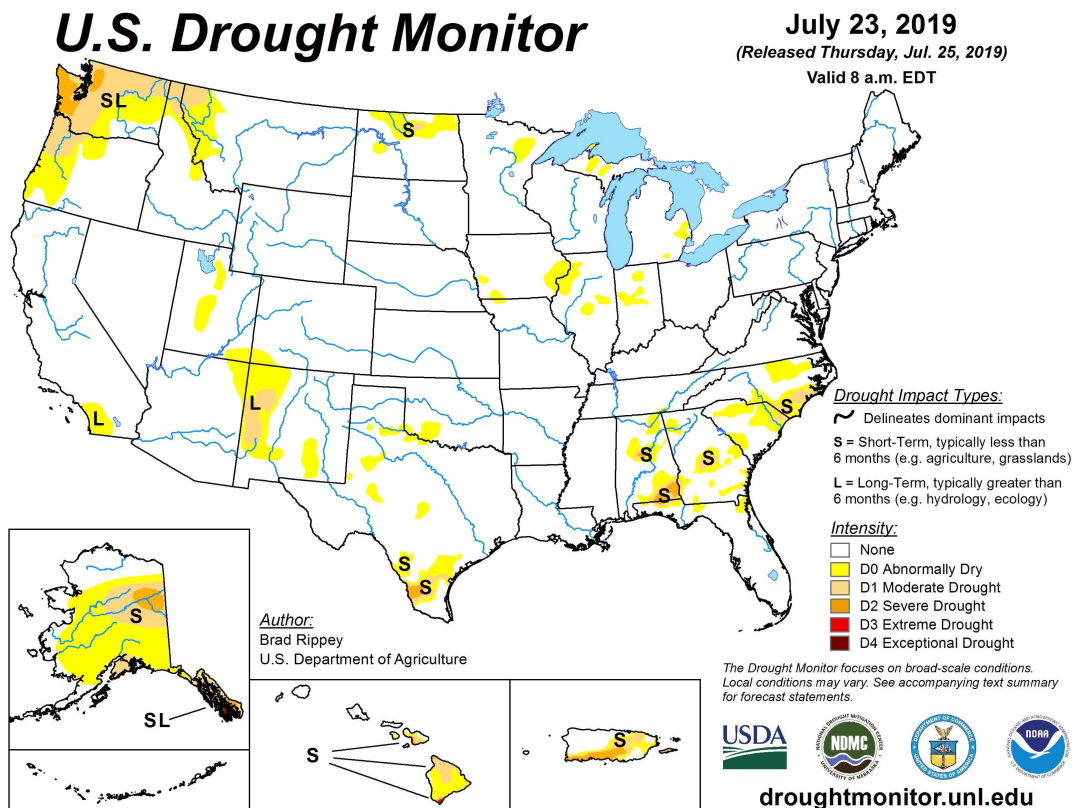


7월 3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0)

□ 미국 기후 현황(7/21~7/27)

산발적 또는 광범위한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있는 후 미국 동부의 삼분의 일에 찬 공기가 몰려왔다. 가장 심했던 강우 중의 얼마가 - 지역적으로는 2-4인치 또는 그 이상 - 플로리다 몇 곳에 내렸다. 중대서양 지역 남부와 뉴잉글랜드 남부를 포함하여 다른 몇 지역에도 상당한 비가 내렸다. 주초에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 아주 심한 폭염이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평원에서 동쪽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간 온도가 평년 근처 또는 그 이하였다. 사실상 평원 남동부와 미시시피 삼각주 북부를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은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5° F 이상 낮았다. 주 후반기에는 평원 북부와 중서부 위쪽 일부에 걸쳐서 소나기가 발달했다. 한편 갑자기 활성화된 계절풍 순환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포코너스’ 주들까지 장마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들불 위협을 억제하고 방목지에 유익을 주었다. 소나기가 내렸지만 서부의 주간 평균 온도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남서부까지 많은 장소에서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반면에 태평양 북서부에서부터 고원 북부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겨울밀 수확과 봄에 파종한 소곡류의 성숙에 유리했다. 평원 남부에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표토의 수분을 고갈시키고 있었고 방목지, 초지, 여름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 농업 현황 요약(7/22~7/28)

비는 7월 28일까지 일주일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대서양 중부, 미시시피 계곡, 미네소타, 뉴잉글랜드, 뉴멕시코 일부에서 가장 심하게 내렸고 어떤 곳은 3인치 이상 내린 곳도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온도가 6° F 이상 높다고 보고되는 등, 미국 서부의 많은 곳들과 북쪽에 있는 일련의 주들의 일부에서 온도가 평년보다 높았다. 반면에 대평원 중부와 남부 그리고 미시시피 계곡 일부에서는 평년보다 6° F 또는 그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7/21~7/27)

■ 유럽: 중부와 서부 재배지역에 폭염이 돌아오면서 작물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 기간 중 평균 온도는 평년보다 4-8° C 높았는데 남동유럽은 이보다는 다소 시원하여 평년보다 1-3° C 높았다. 서프랑스에서 북서독일 및 저지대 국가들까지 40° C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와 함께 대륙 서부의 3분의 2에 최고 기온이 35° C까지 올라갔다. 지난 주 소강상태 이후 다시 시작된 더운 날씨는 특히 남프랑스에서 온도가 42° C 정도로 높이 치솟을 때 솟이삭 출현기와 수염기에 있었던 옥수수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콩과 해바라기도 마찬가지로 발육이 생식 단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지작물이 열내성이 더 강하다고는 하지만, 나쁜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단기 건조가 늘어지면서 폭염의 영향을 악화시켰다. 7월 첫 3주 동안 30일 총강수량이 프랑스의 많은 곳에서는 평년의 10% 내외였고 독일부터 폴란드와 헝가리까지는 50% 미만이었다. 주말에는, 중서유럽에 절실히 필요했던 비(10-50 mm)가 내리고 온도가 시원해지면서 최근의 폭염을 종식시키고 몹시 필요했던 토양 습기를 제공했다. 온열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생산자들이 농작물이 입은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의 옥수수, 해바라기, 콩의 수확량은 얼마간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있는 남동유럽의 여름 작물은 봄과 여름(지금까지) 동안 비가 잘 오고 극도의 더위도 없이 잘 자라고 있어서 옥수수, 해바라기, 콩에 대한 수확 전망은 ‘ 좋음~우수’ 로 유지되었다.

■ 구소련(서부): 여름 작물에 대한 좋은 조건은 구소련 지역의 많은 곳에서 계속되었다. 3주 연속, 폭염이 없었던 데다가 (29-34° C)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 (15-100mm, 국지적으로 더 높았음)가 동반한 날씨는 기온에 민감한 생식 및 발육 단계를 지나고 있는 옥수수, 콩, 해바라기에게 이상적이었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에서 국지성 단기 건조 (30일 강수량이 국지적으로 평년의 절반 이하) 포켓이 주목되었지만, 열 스트레스가 없어서 옥수수, 콩, 해바라기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식기 (북부) 및 종실비대기 (남부)에 있는 여름 작물에 대한 인공위성 식생 건강 자료에 따르면 수확량 전망이 계속 양호하였다.

■ 동아시아: 강수량은 중국 동부와 남부에 걸쳐 매우 다양했다 (1-100 mm 또는 그 이상). 남쪽의 습기가 후작 벼에게는 적합했고 양쯔강 근처의 단작 벼에게는 다소의 개선을 가져왔다. 또한, 북중국평야의 많은 곳에 내린 비도 - 서쪽 지역 (허난과 그 인근)에는 여전히 건조가 만연하고 있지만 - 여름 작물들에 필요한 습기 조건을 개선했다. 이와 동시에 양쯔 계곡과 북중국평야 전역에 스트레스성 더위(주평균 기온 30° C 이상, 평년보다 3-5° C 이상)가 보고되었다. 동북부에서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인근의 내몽골 인근 현에 광범위한 소나기 (25-100mm 이상)가 내려서 생식기에 있는 옥수수와 콩에게 아주 좋은 토양 습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상당한 단기 수분 부족이 지속된 랴오닝성에서는 적은 총강수량(25mm 이하)이 보고되었다. 한편 중국 서부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신장 북서쪽 면화 지역의 밤 기온이 평균(거의 5° C)을 훨씬 웃돌면서 높은 낮 기온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농작물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서부 국경 지역을 따라, 주 후반에 한반도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계절적 가뭄 상황을 다소 완화시켰다. 태풍 (나리)이 35노트의 바람과 국지적으로 많은 강우량(50mm 이상)을 동반한 폭우로 일본 남동부에 사태를 일으켰다.

■ 호주: 가뭄에 시달리는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 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건조한 날씨는 남부 뉴사우스웨일즈에도 확대되어 영양생장 중인 겨울 곡물과 유지 작물을 위한 토양 습기를 감소시켰다. 호주 남동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3-15mm)가 빅토리아와 남호주에 밀, 보리, 캐놀라의 생육에 도움을 주었고, 수익률 전망도 양호했다. 서호주에서는 광범위하게 흩어진 소나기(대부분의 위치에서 5mm 미만)가 영양 생장 중인 겨울 작물에 물을 추가로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토양의 습기가 지역 전체에 적합하여 겨울 곡물과 유지 작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웠다. 호주 남부와 동부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1~3° C 높아 농작물의 생육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 아르헨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습한 날씨는 북동부 생산 지역에 겨울 곡물의 발아 및 활착을 위한 풍부한 습기를 제공했다. 산타페와 엔트레 리오스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포모사와 코리엔테스를 거쳐 총 25~10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부와 코르도바에서 북쪽으로는 더 적은 양(10~25mm, 일부 고립적으로 더 많이)을 보였다. 라팜파 및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나머지 지역을 포함한 북서쪽과 남서쪽 먼 곳의 다른 지역들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가을 밭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기온은 매우 다양했는데, 낮 최고 온도가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섭씨 10도 대 중반이었고 차코와 포모사 주변은 섭씨 30도 대 중하위였다. 결빙은 전통적으로 더 서늘한 남부와 서부 농업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목화는 94%의 수확을 거두었고, 코르도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산루이스에만 밭 작업이 남아 있었다. 옥수수는 82%의 수확을 거두어 지난해 추세와 비교해서 8% 뒤졌다. 한편 밀은 지난해와 같은 속도로 94% 파종되었다.

■ 브라질: 건조한 날씨가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을 지배하여 옥수수, 목화, 기타 여름 작물의 건조와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완전한 건조가 토칸틴을 거쳐 북동쪽으로, 상파울루와 미나스 게라이스를 거쳐 남동쪽으로 뻗은 넓은 지역을 지배하였고 여름의 더위가 동반되면서 전통적으로 따뜻한 마토 그로소와 토칸틴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 중반에 달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차 작물 옥수수는 7월 22일 현재 65%가 수확되었다. 한편, 밀 작물의 거의 60%가 개화기에 도달했다. 마토 그로소에서는 7월 26일 현재 옥수수가 94% 수확되었는데, 5년 평균보다 11 퍼센트 앞섰고, 면화는 25%로 평균보다 3 퍼센트 뒤졌다. 앞서 언급한 건조한 농업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폭우(25-100mm, 국지적으로 200mm에 육박하는)가 ‘리오 그란데 도 술’ 을 적셨는데 이곳은 전형적으로 나중에 심은 밀이 생식에 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북동쪽 해안을 따라 계절적인 소나기(10~50mm 또는 그 이상)가 계속되면서 커피, 사탕수수, 코코아를 위한 수분을 상승시켜주고 있었다.